

## 【問題提起】

발표자가 본 발표문에서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発表者が本発表文において「不平等条約体制の克服の可能性」を提起したのは次のような理由による。

基于以下的理由本文中提出“克服不平等条约的可能性”。

1. 첫 번째는 동아시아 3 국의 경쟁과 갈등의 근현대사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 특히 상생의 공존과 공영의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 내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一つに、東アジア三国の競争と葛藤の近現代史の裏に隠されている多様な姿、特に、共に生きるための共存と共栄の空間として東アジアを創ろうとした努力ないし端緒を探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希望があったからである。

首先，在近现代当中东亚三国有多种多样的争端和纠葛，我希望可以弄清这些问题。特别是，我想探寻东亚三国是否可以共同努力创造一个共存共荣的空间，而这些的起点又是在哪。

2. 두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를 통해서 상호 공감과 소통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갈등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二つに、韓国、日本、中国の歴史学者たちがデジタル・アーカイブを通じて相互共感し、また疎通の記録を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今日の歴史的な葛藤を少しずつ治癒していく可能性を模索した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

其次，韩日中三国的历史研究者们通过数字档案相互交流，共享资料记录。我希望通过这些摸索如何治愈历史上的创伤，抚平历史上的纠葛。

3.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3 국의 서양인식을 밝히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불평등조약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라는 관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 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한다면, ‘불평등조약’이 갖는 서양의 ‘침략적 구도’ 속에 감춰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 사례가 있을까? 아니 사례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本稿は、東アジア三国の西洋認識を明らかにすることの一環として企画された。その中で、不平等条約については、帝国主義国家の侵略という観点が強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では、東アジア三国だけでなく、イギリスをはじめ西欧圏の多様なデジタル・アーカイブを共有する場合、「不平等条約」の持つ西洋の「侵略的な構図」の中に隠された和解と平和を志向した事例はあるのだろうか。いや、事例を探すことはできるのだろうか。事例を探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期待の共有を祈願しつつ、本稿のむすびとしたい。

本文意图之一就是弄清东亚三国对西方的认识。而关于不平等条约，一般都认为是帝国主义国家侵略的结果。那现在大家不仅共享东亚三国的数字化资料，还共享以英国为首的西欧国家的数字化资料，那提出“不平等条约”的西方国家的“侵略意识”当中是不是也隐藏着朝向和解、和平的事例呢，我们正好可以通过这些数字化资料来寻找。祈愿我们能找到这样的事例。